

메르스 확진환자 진료 의사 등 5명 광주 남구서 격리조치

순창군보건소, 확진환자 5일간 광주시에 통보안해 지자체간 공조 허술...“지역 확산 될라” 우려 증폭 삼성서울병원 진료 20대, 격리 대상자인줄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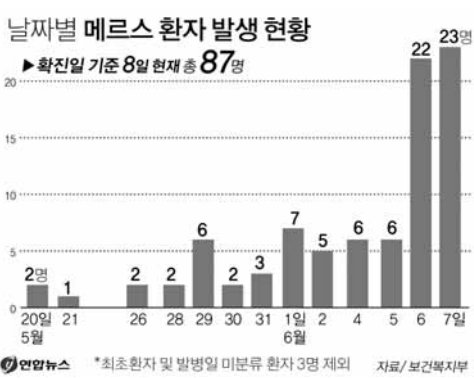
광주시 남구 주민들 사이에서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들이 ‘자택 격리’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알려지는데, 정부의 ‘뒷북’ 대응 등 부실한 방역 체계에 대한 불신감도 더해지면서다.

남구는 대응 태세 등을 적극 알리고 있지만 폭주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8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북 순창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여·72)씨를 진료한 순창지역 내과의원 의사 B씨를 비롯, 의료진 5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광주시 남구 지역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순창 지역 환자 A씨가 내과의원을 찾기 이를 전 방문했던 순창 모 병원 의사 C씨와 부인인 순창 내과의원 원장, C씨 병원 물리치료사 D씨의 경우 ‘일상격리자’로 분류돼 있으며 B씨와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의사 F씨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

광주지역 격리(자택·일상) 대상자 18명 중 5명이 남구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광주시와 남구는 폭주하는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의료진들이 머무르는 동네가 어느 아파트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느냐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쳐 업무를 보기 힘들 지경”이라고 했다. 학교 등 교육청의 방역 대책을 문의하는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 설명이다. 남구 지역 대형 마트의 경



우 평소와 비해 방문객들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자치단체간 미흡한 공조체계도 주민들의 불신감을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 경우 순창보건소와 전북도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 확진 환자외의 접촉자 명단을 뒤늦게 전달받는 등 미흡한 공조 체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순창보건소측은 확진 환자외의 접촉자 명단을 판정을 받은 5일이 지난 뒤에야 광주시에 대상자 명단을 알려주면서 대상자 모니터링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 당국은 또 14번 환자가 머물렀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도 모른 채 광주 버스터미널과 대학 기숙사 등을 별다른 제재 없이, 돌아다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측은 부랴부랴 방역 활동을 벌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손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만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보건 당국의 지시를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메르스 예방 캠페인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8일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물티슈와 손 세정제를 나눠준 뒤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체험교육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제 1차 양성 판정 50대, 14번 환자 접촉사실 몰랐던 보건당국

고열 가라앉자 의심환자 제외...나흘간 거리 활보

전북 김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50대 의심환자의 행적은 보건 당국의 안전한 대응방식이 재차 확인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에 거주하는 A(59)씨는 1차 양성 판정을 받기 전인 지

난 3일 고열 증상으로 김제 모 병원을 찾았다. 해당 병원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인 A씨 상태를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당국은 하지만 A씨가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한을 다녀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열 증상이 가라앉자 A씨를 의심환자에서 제외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장모 병문안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지만 응급실에 있던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병원 두 곳을 더 거쳤고 지

난 7일 정부의 병원 명단 발표로 삼성서울병원이 공개된 뒤에야 보건당국에 사실을 알렸다. 당국의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 명단 공개가 늦어지면서 의심환자가 3일부터 7일까지 거의 나흘 동안이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셈이다.

이 기간 A씨와 접촉자만 현재까지 369명에 이른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들 모두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내린 상태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움직인 동선을 대상으로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수련회 다녀온 광주지역 중학생 90여명 식중독 증세

보건당국 역학 조사 나서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 90여명이 수련회를 다녀온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가 나섰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245명 중 91명이 설사나 복통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학생은 지난 3~5일 사흘 일정으로 전북 완주의 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

련활동을 하고 돌아온 뒤 이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증상이 심한 26명이 병원에 다녀왔고, 2명은 결석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학생들의 가검물과 해당 수련원에 직원을 보내 역학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가벼운 장염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한 학생은 없다”며 “조리도구를 소독하고 익힌 음식을 급식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메르스 등 학교보건 중요성 날로 커지는데 광주 학교보건실 현대화 15년째 지지부진

김옥자 시의원 지적 사립학교 소외 심각

메르스 등 학교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데도 학교보건실의 현대화 사업은 15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립 사립에서 사립학교가 소외되는 등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사진)은 8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한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해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 전체 311개교 중 15.1%인 4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립

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공립은 149곳 중 18곳(12.1%)만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사립은 3곳 모두 사업에서 빠졌다. 중·고교도 미실시 비율이 공립은 3%와 4%에 불과했지만, 사립은 무려 40%와 28.6%에 달했다. 이는 사립 중학교는 10곳 중 4곳(40%), 사립 고등학교는 10곳 중 3곳(30%)이 열악한 보건실에서 학생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늘고 최근 메르스 사태 등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에 했던 곳도 다시 해야 할 판에 50여 곳은 아직도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교육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각종 교육감 공약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작 학생 건강에는 인색하다”고 질타했다.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보건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중,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